

호주의 에너지시장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서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석유 및 석탄의 확인 매장량은 최근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아직 탐사가 안 된 곳도 많다. 또한 부존 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료는 호주 산업관광자원부 D. Clarke 에너지환경실장의 발표 자료와, 에너지부 EIA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 편집자주

1. 경제 현황

항 목	내 용	비 고
- 수상	John Howard	1996. 11월 이후
- 국토면적	7,690,000km ²	한반도의 약35배, 세계 6위
- 인구	19,732천명	2003. 7월
- 연방구조	6개주(NSW/Vic/QLD/SA/WA/Tas), 2개 준주(NT/ACT)	
- GDP	AU\$7,160억	경제성장률 : 2002(3.6%), 2003(2.9%)

호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9%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여 선진국으로서 아주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국내소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촉진시켜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1년 세계 경제침체를 기대 이상으로 잘 넘긴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 2002년에는 실질 GDP가 3.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대외수요의 감소와 호주 달러의 강세로 수출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낮았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또 하나의 원인은 2001-2002년간 전국을 휩쓴 극심한 가뭄이었다. 그러나 2004년의 실질 GDP는 세

계경제의 회복으로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현여당인 자유당은 1996년 집권하였고 2001. 11월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자유당은 2000년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2001년 이자율을 여섯 차례나 인하하는 등 국내수요 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차기 총선은 2005년에 실시된다.



2. 에너지소비 및 교역 현황과 정책

호주는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의 매장량이 풍부한 에너지자원 부국이다. 호주 에너지소비의 주종은 석탄이며 발전연료 대부분도 석탄으로 공급되고 있다. 석유소비의 비중도 높으며, 천연가스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 부존량>

에너지원	경제적 가채매장량	가채년수	호주/ 세계(%)
- Black Coal	41Gt	123	5.2
- Brown Coal	38Gt	571	20.1
- 석유	1,008GL (35억bbl)	5	0.3
- 천연가스	3,995Bcm (90Tcf)	62	1.6
- 우라늄	648ktU	84	41.4

당면 문제는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생산은 감소하는데 반해 소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에너지부문의 해외투자 유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다수의 호주 국민들은 자국의 까다로운 투자환경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03년 다수의 미국 에너지기업들이 호주에서 철수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는 OECD의 몇 안 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1986년 이후 세계 제1위 석탄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6위의 LNG 수출국이기도 하다. 석탄과 LNG에 대한 아시아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호주의 에너지수출 전망은 밝다. 그러나 말지 않아 중국과는 석탄, 인도네시아와는 석탄 및 LNG 양부문의 수출경쟁이 예상된다. 호주의 석탄 수출 증가 여부가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대응방향에 달려 있다. 호주 석탄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이미 수입부과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석탄소비 감소가 확실하다.

<에너지수출 주요 대상국가>

에너지품목	대상국(%)
- 석유제품	싱가포르31, 한국19, 일본16
- LPG	일본87, 한국7
- LNG	일본 및 한국
- 우라늄	미국50, 일본22, 한국9, 프랑스/영국 각6
- 석탄	일본44, 한국13, 대만9, 인도7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공급
- 국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
- 환경문제에 적절한 대응

□ 에너지정책 개발 구조

연방정부

- 내각에너지위원회(위원장 : 수상)
 -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 전략적 접근
- 에너지 Task Force
 - 에너지생산성, 환경, 혁신, 에너지안보, 수입, 시장/산업개발, 자원개발 업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 장관협의회(MCE)(위원장 : 연방정부 산업관광 자원장관)
 - 연방 및 주정부 에너지장관 전원으로 구성
 - 전력 및 가스부문의 광범위한 구조개편 문제 협의

“ 호주는 OECD의 몇 안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며

1986년 이후 세계 제1위 석탄수출국과 제6위의 LNG 수출국이기도 하다.

석탄과 LNG에 대한 아시아의 지속적 수요증가로 호주의 에너지수출 전망은 밝다.

그러나 멀지않아 중국과는 석탄, 인도네시아와는 석탄 및 LNG 양부문의 수출경쟁이 예상된다 ”

□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1990년대 착수)

- 에너지사업의 수직통합형 기존 구조를 분리
- 국영기업의 분리/주식회사화/민영화
-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경쟁
- 독점적 에너지망의 효율적 규제
- 소매부문 경쟁
- 산업/상업부문의 에너지가격 하락
- 1995-2010기간 예상편의 230억 달러

3. 석유부문

2002년 말 호주의 석유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추산되어 2001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매장량의 대부분은 호주 북서부지역과 남동지역의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다. 남부 Bass Strait 18억 배럴과 서부 WA주의 Carnarvon분지에 11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

최근 생산량은 감소하고 국내 소비량은 증가하여 석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신규탐사허가를 점차 늘리고 있다. 2003. 3월에는 35개의 대륙붕 탐사를 허가했는데, 이 중 22개가 Northern Territory와 WA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03. 2월 Woodside Petroleum과 BHP Billiton 2개 회사의 유전 발견으로 西호주의 신규 석유발견에 대한 전망은 좋은 편이다. 南호주에서 석유탐사에 가장 열의를 가지는 기업은 Santos인

데 2003. 9월 동지역에서 3개의 신규 석유탐사 허가권을 얻었다. 南호주 지역은 그동안 대부분 개발되지 못했는데 열악한 기후조건과 깊은 수심으로 비용이 높기 때문이었다. 1992년 이후 호주 심해 유정 36개 중 겨우 4개에서 석유가 생산되었다.

과거 호주의 석유개발은 BHP Billiton, Woodside Petroleum, Santos 등 석유 관련 국내 대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외국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탐사활동에 유치하기에는 조세제도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2. 10월 정부에서는 석유탐사법의 포괄적 개정의 전단계로 석유산업의 기초비용을 줄이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역시 같은 해 정부는 국책연구소인 AGSO-Geoscience에 4년에 걸쳐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기관은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탐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진파 및 지질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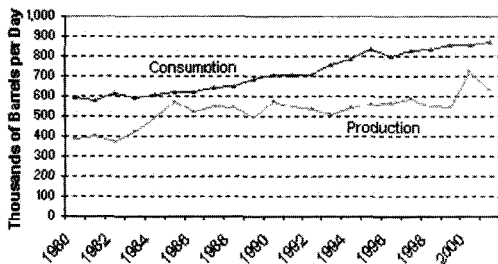
호주의 석유생산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805,000b/d로 피크에 달하였고 이 중에서 722,000b/d가 원유생산 이었다. 2002년에는 예상했던 대로 626,000b/d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3년에는 600,000b/d 이하로 내려갔다. 호주의 농업/자원경제청 ABARE는 2006년의 생산량은 560,000b/d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생산 감소의 주원인은 Cooper-Eromanga 및

Gippsland 분지에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소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석유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석유소비는 연평균 3% 증가했으며, 향후 20년간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국내 석유소비는 881,000b/d로 순수입량이 166,000b/d였다. 그러나 2000년의 순수입량은 54,000b/d였다. 2010년 호주의 석유자급률은 80%에서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석유생산과 소비수준>

Oi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ustralia
1980-2001



호주는 전통적 석유 외에 퀸즈랜드주에 오일셀이 매장되어 있고 매장규모는 300억 배럴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요 개발기업인 SPP와 CPM 양사는 그린피스 때문에 최근까지도 시장화를 할 수 없었다. 1998년 이후 그린피스는 퀸즈랜드주에서 시위를 벌여왔으며 오일셀이 오염배출이 많다는 이유로 호주 정유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2001년 4개 정유사 모두 퀸즈랜드産 오일셀 구입을 거절하였으며, 정부의 물품세 할인에도 불구하고 오일셀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2002. 5월에는 오일셀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해 물품세 할인을 확대하는 잠정적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12개월간 국제시장 판매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2. 7월 SPP/CPM

사는 Mobil Oil Australia 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오일셀에서 추출한 나프타의 국내 판매에 성공했다.

3.1 정유부문

호주에는 8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기업당 2개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제규모는 848,250b/d. 3개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3개는 남해안 그리고 1개는 서호주에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호주의 정유공장은 소규모이며, BP계는 138,500b/d, ExxonMobil계는 135,000b/d, Shell계는 119,000b/d, 제4의 정유공장은 Caltex계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8개 정유공장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는데, 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대규모 외국 정유사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호주 정유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아시아지역의 정유설비 과잉과 호주까지의 원유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호주의 정유 공장들은 1970년대 정부에 의해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중질유 보다는 경질유 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2006년까지 새로운 품질기준에 맞추기 위한 설비 고도화가 정유사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2003. 4월 ExxonMobil은 78,000b/d 용량의 Adelaide 정유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가로 문 닫는 정유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천연가스

2003. 1월 현재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90Tcf로 추정되며 아태지역에서 가장 많다. 가장 풍부한 매장지역은 북서해안 Carnarvon(40Tcf), Browse 및 Bonaparte 대륙붕이다. 이 지역은

호주의 에너지시장

현재 호주 LNG 사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 6개 기업 컨소시엄인 북서대륙붕(NWS) 프로젝트가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LNG 프로젝트인데, 3개 production train은 일본과 장기계약으로 연간 800만톤(26억달러)의 LNG를 수출하고 있다.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 690Bcf에서 2001년 1.17Tcf가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2003년 2.8%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3.5%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의 이유는 석유생산 하락의 우려가 천연가스로의 대체를 가져와 소비가 증가한 데도 일부 기인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호주의 연료믹스에서 약 18% 정도로 낮지만, 소비는 1995년 710Bcf에서 2001년 824Bcf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향후 20년간 호주의 천연가스 소비는 他연료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여 2019-2020년에는 총에너지 소비의 2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주에서 국내소비용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북서대륙붕 뿐 아니라 중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LNG의 수출용 수요 때문이다. 호주는 현재 제 5위의 LNG 생산국, 제6위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LNG 수출의 7%를 차지한다. 2001년에는 330Bcf의 LNG를 생산하여 80% 이상을 수출하였다. 가장 큰 교역상대국은 역시 일본이며, 한국과 스페인으로도 일부가 수출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00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환경정책 완화와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하여 LNG 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현재 NWS에 24억 달러 규모의 제4 LNG production train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2004. 6월부터는 연간 LNG 수출량이

1,200만톤으로 증가한다. LNG 산업은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

2002. 3월 Phillips Petroleum은 Darwin 근처 Bayu-Undan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를 17년간 일본에 연간 300만톤씩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2003. 5월에는 Bayu-Undan 프로젝트 개발에 적용할 법과 금융조건에 대한 호주-東티모르간 합의가 있었다.

2002. 8월 중국은 호주 NWS 프로젝트를 광동지역의 LNG 공급원으로 선정하고 향후 25년간 연간 330만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추진되면 250억 달러라는 호주 역사상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NWS에 다섯 번째의 LNG train이 건설되게 된다. 2003. 1월에는 7년간 매년 50만톤의 LNG를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계약이 발표되었다.

WA주 대륙붕에 개발 중인 Gorgon 개발프로젝트는 2008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40-50Tcf의 LNG 잠재력이 있다. 2003. 3월 호주와 東티모르는 Greater Sunrise 가스전(8.4Tcf의 천연가스와 3억bbl의 콘덴세이트 매장) 개발을 위한 양국간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동부지역의 가스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은 퀸즈랜드주에서 생산되는 탄층메탄을 이용하거나 파푸아뉴기니, 티모르海 및 Browse/Carnarvon 분지의 생산 가스, 그리고 Gippsland/Otway분지에서 개발하여 생산되는 가스로 충당할 수 있다.

5. 석탄산업

호주에는 90.5Bst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동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퀸즈랜드주 Bowen 분지에 최대매장량인 약 37.8Bst,

“ 2001년 1월 현재 호주의 발전시설 용량은 4천300만kW이며, 약 85%가 석탄화력이고 14%가 신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이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주로 산탄지역인 동부에 위치하며, 서남부지역은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2001년 1천982억kWh를 발전하고 1천844억kWh를 소비하였다.”

NSW주 북부분지에 약 32.1Bst, 기타 남서부지역에 일부가 매장되어 있다. 퀸즈랜드주와 NSW 2개 주에서 연간 생산량의 95%가 나오고 있다. 양쪽 모두 코크스용과 발전용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데, 퀸즈랜드주는 코크스용이 훨씬 많고 NSW는 발전용이 더 많다. 지난 10년간 호주 석탄생산은 연간 4% 성장하여 2001년에는 356.9Mmst를 생산하였다. 2003년에는 증가율이 약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호주의 석탄산업은 4개 기업 BHP Billiton, Anglo American(영국계), Rio Tinto(호주-영국 합작) 그리고 Xstrata(스위스계)이 지배하고 있다. 석탄분야가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최근 석탄업계의 합병 때문이다. 호주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석탄생산국으로서 시장 영향력이 큰데, 그 이유는 연간 생산량의 60%를 수출, 세계 전체수출물량의 28%를 차지하는 제1위의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호주 석탄은 6,000kcal/kg이상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나 황함유량도 0.3~0.8% 정도로 낮다. 호주는 동해안의 7개 항구 9개 터미널에서 수출용 석탄을 선적하고 국가 전체 수출수입의 약 10%가 석탄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특히, 코크스용의 경우 2001년 호주가 세계 수출량의 55%를 차지하였으며, 발전용의 경우도 약 21%를 차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전용탄 수출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국이 나타났다. ABARE는 발전용탄의 수출증가율은

연간 4.7%, 코크스용은 1.3%로 예측한다.

일본은 호주 석탄수출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와 유럽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1990년대 말부터 호주의 공급자들은 주요 소비국인 일본의 발전사업자들과 수출용 석탄의 가격을 직접 결정해왔다. 그 결과 매년 결정되는 협상가격이 석탄수출 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001년 석탄수출업자들은 높은 석탄가격과 호주 달러의 약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수입을 얻었다. 2002-2003 회계연도에는 세계 석탄시장의 공급과잉과 호주 달러의 강세 전환으로 석탄수출 수입이 낮아졌다.

6. 전력산업

2001. 1월 현재 호주의 발전시설용량은 4,300만kW. 약 85%가 석탄화력이며 14%가 신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로 산탄지역인 동부에 위치하며, 서남부지역은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2001년 호주는 1,982억kWh를 발전하고 1,844억kWh를 소비하였다. 호주 전기공급자협회 ESAA에 따르면, 앞으로 전력소비 증가율이 급속히 높아져 2008년에는 2,060억kWh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증가의 대부분은 퀸즈랜드주, NSW주 및 빅토리아주가 될 것이다.

호주는 1996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정부가 발전회사를 소유

하였으나, 구조개편으로 다수의 州소유 발전회사가 분리되고 민영화 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전력 시장(NEM)을 설립하여 “pool” 방식의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북서부 2개주와 남부 섬인 Tasmania주는 NEM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북서지방 2개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 그 이유이며, Tasmania는 육지와 전력망 연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 2002. 11월 WA 州정부는 독자적인 전력산업 개편을 발표하고 발전사업을 분리하여 2005년까지 발전부문 도매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호주의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1996-2000기간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약 11%가 하락했지만, 하락분의 대부분이 소매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대규모 수용가인 산업/상업부문에 돌아갔다. 2000-2001 기간 NEM은 이상 기온과 공급부족으로 심한 가격변동을 경험하였다. 2002. 1월 소매부문 경쟁이 NSW주와 빅토리아주에 도입되었다.

2개주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수요증가로 잉여설비가 줄어들고 초과설비와 경쟁강화로 전기가격을 상당히 하락시켰다. 한편 SA주에서는 2003. 1월 소매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전기요금이 오히려 상승했다. 퀸즈랜드주는 소매경쟁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지방정부의 전력부문에 대한 통제권한 이양을 망설이는 암시가 될 수도 있다.

공급측면에서 NEM의 신규투자 활성화는 성공적이었다. 2000-2002기간 3,300MW의 신규 발전설비가 추가되었다. 여전히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동부지역에서는 전력예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신규발전설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2005년에는 전력부족현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현재 신규 외국투자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데, 호주의 발전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미·영 기업들이 호주의 전력산업에서 이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l Paso Energy, Dominion Energy, AEP, Scottish Power 및 PowerGen 등이 대표적인데, 이미 자산매각 발표를 하였거나 향후 그럴 계획이다. 다수의 기업들이 호주시장 이탈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사실은 호주의 州간 전력망연계와 정부의 전력산업 규제가 줄어들어서 호주시장이 투자자들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 발전구성비>

에너지원	1990-91	2002-03	2019-20
Black Coal	54.2	52.6	48.6
Brown Coal	23.3	22.7	19.0
석유	2.7	1.3	0.9
천연가스	10.6	14.8	22.5
바이오매스	0.0	0.8	1.4
바이오가스	0.0	0.2	0.6
수력	9.2	7.4	5.9
풍력	0.0	0.2	0.9
계(%)	100	100	100

<향후 10년간 전력인프라 투자소요액>

투자부문	투자소요액(억\$)	구성비(%)
배전시스템	180	49
송전시스템	40	11
첨두/기저부하발전	50	13
신재생에너지발전	30	8
가스공급	70	19
계	370	100

“호주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비용-효과 방식을 인식하고 있다. 경제 각 부문의 최종이용 효율 향상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핵심요소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7. 신재생에너지

호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을 위해 3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계와 협력하여 연간 40억AU\$의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전기를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규정하는 MRET(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이다. 이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9,500Gwh의 전기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 이의 무규정은 2020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세부계획별 예산지원 규모>

세부계획	지원(만\$)
- 상업화 프로그램	4,560
- 홍보 프로그램	1,000
- 형평기금(Equity Fund)	2,660
- 벽지지역 發電 프로그램	20,000
- 태양광 리베이트 프로그램	4,140
계	32,360

MRET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인증서(REC)를 획득하게 되며, 도매전기사업자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REC를 확보하여 정부에 제

출해야 한다. REC는 거래가 가능하다. 2003년 한 위원회에서 MRET의 필요량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2020년까지 20,000Gwh의 REC를 예상하였고 정부에서는 이 제안의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천계획의 요체는 정부와 업계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성장 장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대책단(AGO)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개발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8. 환경부문

에너지는 호주의 주요 수출 收入源이며 수출용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석탄이 호주 일차에너지 믹스의 주요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도시공기오염의 증가는 석탄소비 보다는 자동차 이용의 증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2001년 호주는 에너지관련 탄소 배출에서 세계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도 에너지부문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비용-효과 방식을 인식하고 있다. 경제 각 부문의 최종이용 효율 향상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핵심요소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이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달성의 부분적 방법으로서 정부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發電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